連載

栽培教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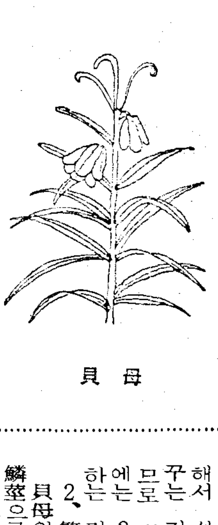
新規會員을 爲하여

○生藥名：貝母 Fritillariae Rhizoma
○效用：鎭咳、祛痰、排濃藥、解熱、肺結核、金瘡、冬痛등에 쓰인다。

패모(貝母)

1、性 狀

中國 原産의 多年生 宿根草이다。草長이 30～60cm 자라며 잎은 가늘고 길며 줄기에 3～4잎이 돌려 붙어 있다。4월에 줄기의 중간부분의 葉腋에서 淡黃綠色의 鐘狀의 꽃이 핀다。짧은 꼬투리에는 넓은 날개가 6개 있고 種子는 둥글 납작하다。貝母의 鱗莖은 球形 또는 扁球形으로 직경이 1～3cm、두께 1cm 내외 肉質의 鱗片이 2개가 있으며 外面은 白色 또는 淡黃色의 白粉이 붙어 있으며 속은 淡黃色이다。


貝 母

2、品 種

1、貝母：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var. Thunbergii BAKER
産地：中國의 浙江、江蘇、日本에서는 藥用 또는 觀賞用으로 재배한다。

2、浙貝母：Fritillaria verticillata WU DNOW. 異名：象貝、大貝母
産地：浙江지방에 自生한다。

3、川貝母：Fritillaria Roylei HOOKER 異名：川貝
産地：西藏의 四川省 근처 지방에 난다。

4、平貝母：Fritillaria Ussariensis MAXIMOWICZ 異名：平貝=坪貝
産地：우리나라、만주 우스리

5、其他：學名 不名의 西貝、古貝등이 中國일대에 自生한다。

3、栽培法

1、栽培適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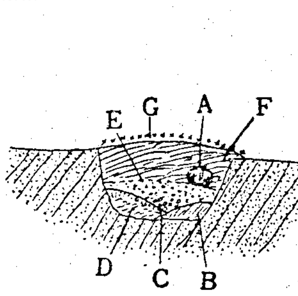
貝母는 비교적 耐寒性이 강한 작물이지만 재배함에 있어서는 따뜻하고 다소 건조한 氣候가 적당하며 아주 추운지방이 아니면 어느 곳에서나 재배할 수 있다。

土質은 表土가 깊고 물빠짐이 좋은 埴質壤土 또는 砂質壤土가 적당하다。多濕한 밭에서는 鱗莖 生育이 안되고 病害를 입거나 썩기 쉽다。

한편 貝母의 栽植期 수확기가 다른 작물과의 間作관계가 좋고、그리고 지상부의 경엽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으므로 뽕밭이나 과수원 등에 間作을 할 수 있다。따라서 連作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鱗莖의 收穫과 발육을 위해서 신선한 土壤에 가꾸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한번 재배한 밭에는 2～3년간 輪作하는 것이 좋다。

2、繁殖

貝母의 번식은 주로 鱗莖으로 번식하지만 씨앗 또는 鱗片의 插木法에 의하여 번식할 수 있다。



씨 패모 심는 要領
A；씨 패모 B；두엄 C；과석 D；깻묵 E；겉흙 F；덮는 흙 G；두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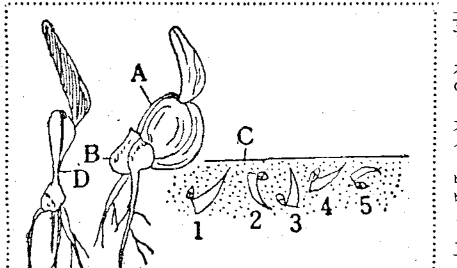
㉮鱗莖繁殖：인경은 보통 6월 상순경에 수확하지만 거름의 種類、氣候 狀態에 따라 캐는 시기가 다소 달라진다。수확한 것은 大小로 선별하여 큰 것은 藥用으로 調製加工할 것이며 작은 것은 繁殖用으로 재식한다。번식할 種貝母는 한개당 보통 2～3돈중되는 것이면 충분하다。이러한 씨 패모는 본밭에 정식하고 작은 鱗莖은 苗床에서 길러서 定植하게 된다。苗床의 위치는 東南向으로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며 適濕한 埴質壤土 또는 砂質壤土가 좋고 밑거름으로서 잘 썩은 퇴비、깻묵을 적당량 시용한 후 2～3회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한다。

만약에 虫害(굼벵이、야도충)가 생길 곳이라면 B·H·C나 석회질소를 심기 2주일전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심는 방법은 넓이 120～150cm의 두둑을 짓고 이랑 사이 12～15cm、포기 사이 6～9cm 내외로 심는다。더욱 작은 鱗莖은 12～15cm 간격으로 골을 치고 條播하듯이 드물게(인경의 크기의 2～3배 간격으로) 뿌려 놓고 흙을 덮는다。흙을 덮는 정도는 鱗莖 크기의 3～4배이며 흙을 덮은 후 그 위에다 왕겨、짚 또는 퇴비 등을 덮어서 表土의 굳어짐과 지나친 乾燥를 막으며 防寒에도 도움이 된다。

심는 時期는 9월～10월중에 심을 수 있으나 따뜻한 지방은 늦게 심고、추운 지방일수록 빨리 심는 것이 좋다。

肥培管理할 것은 별로 없으나 자라는 상태를 보아서 잘 될 수 있으면 일찍 썩은 人糞尿를 물에다 묽게 타서 줄 것이며 수시로 中耕除草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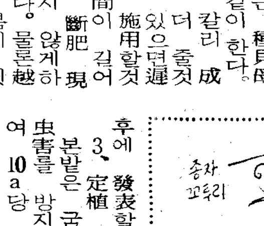
㉯鱗片插木法：鱗莖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種貝母가 부족할 때 번식할 목적으로 鱗片插木하는 것이며 혹은 취급에 따라서 鱗莖이 鱗片으로 되었을 때 꺾꽂이하는 것이다。插木床은 수량에 따라서 정하고 床土는 깨끗한 모래와 산기슭에 있는 黃土를 체에 쳐서 반반씩 섞어서 插床을 만든다。插土의 깊이는 12～15cm로 하여 그림과 같이 꽂는다。꽂은 후에는 灌水를 충분히 하고 床土 表面에 짚을 깔아 햇볕을 가려주며 床土의 건조에 주의하면서 기상에 따라서 灌水를 계속할 것이다。



挿 木 法
1；가장 적당함. 2～5；생장에 우려가 됨.
A；인편 B；삽목 후 신구가 생김.
C；인편의삽목상태 D；삽목 후 새로운 개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면서 새끼 인경(子球)이 생긴다。어느 것은 잎이 자라지 않고서 새끼인경이 생길 수도 있으나 자람이 좋지 않다。이렇게 하여 얻은 鱗莖은 또 다시 苗床에서 육성시켜 씨 패모로서 심게 된다。

㉰採種：채종하는데 技術이 필요하고 매우 힘든 일이라 하겠다。채종을 할 때에는 별도로 採種圃를 선정하고 生育環境을 人爲的으로 조절함으로써 소기의 채종을 할 수 있다。채종포에 심는 時期와 肥培管理는 種貝母 재식 때와 같이 한다。그러나 인산、칼리 成分의 거름을 더 줄 것이며 될 수 있으면 遲效性 肥料를 施用할 것이다。生育期間이 길어서 밑거름의 斷肥 現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물론 越冬 후 이른 봄에 웃거름을 줄 수 있지만 잘못하여 늦게서야 肥效가 나타나면 種子結實이 늦게 되고 그럼으로써 氣溫이 높아지고 특히 氣候的으로 乾燥期이므로 鱗莖은 休眠하게 되어 잎은 자연히 黃色으로 변하여져서 結實도중에 경엽이 시들어 죽게 되므로 실패하기 쉽다。물론 4～6월의 기후적 乾燥期에 들어서(旱魃이 심할 때) 生育이 왕성할 때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그러므로 기상상태를 보아 수시로 灌水하여 水分부족으로 인한 生育旺盛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꽃은 밑에서 피기시작하여 점차로 위로 계속해서 꽃봉오리가 생기는데 한 포기에서 2～3개만 結實시키고 나머지는 따 버릴 것이다。種子번식에 대하여는 추후에 發表할 것이다。



採種과 球根形成

3、定植

본밭은 굼벵이 등의 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10a당 45kg 정도의 석회질소 또는 적당량의 B·H·C를 뿌리고 밭을 갈 것이다。밑거름으로서 두엄、魚肥、깻묵、過石、草木灰를 전면 撤布하거나 골을 깊이 치고 시비한 후 심는다。심는 방법은 넓이 120～150cm의 두둑을 짓고 이랑 사이는 鱗莖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 12～15cm 또는 21～24cm로 골을 깊이 치고 밑거름을 준 다음 그림과 같이 넣고 심는다。포기 사이는 種貝母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9cm부터 15～18cm로 할 것이고 鱗莖은 될 수 있으면 싹이 나는 곳이 위로 되게 놓고 鱗莖 크기의 3～4배 정도의 흙을 덮어준다。種貝母의 심는 양은 230～260kg 정도이다。정식 時期는 9월 상·중순경이며 추운 지방에서는 좀 일찍、따뜻한 지방에서는 좀 늦게 심어도 좋다。

4、肥培管理

㉮肥料：肥料의 種類는 두엄、외양간 두엄(廐肥)、魚肥、油粕類 따위 過石、草木灰 중에서 적당히 선택할 것이고 웃거름으로 人糞尿、黃安을 施用하는 것이 좋다。3成分 중에서 窒素分은 많이 쓰이지만 인산、칼리성분도 상당량을 併用할 것이다。한편 구독하기 곤란한 거름이나 비싼 거름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自給肥料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것이 經濟的이다。

貝母는 가을에 定植하면 2주일 내외로 뿌리가 뻗기 시작하여 다음해 이른 봄 [illegible] 밑거름으로 施用하는 것이 좋다。[illegible] 速效性肥料 [illegible] 施肥量은 (표 1) 참조 [illegible] 人糞尿를 [illegible] 잘 썩은 것을 [illegible] 깻묵 [illegible]

【표1】 貝母의 施肥量 （10a당）

肥料種類	全 量	밑 거 름	웃 거 름 1회（3月下旬）	웃 거 름 2회（4月中旬）
두엄	800～1200 kg	800～1200 kg	kg	kg
깻묵	200	200		
초목회	80			80
인분뇨	400		400	

비고：草木灰는 비오기 直前에 포기 밑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

대용으로 施用한다。

㉯管理：가을에 定植 [illegible] 除草 [illegible]

5、收穫：[illegible] 6월 상순 [illegible] 地上部가 黃色 [illegible] 鱗莖 [illegible] 繁殖用 [illegible] 調製 [illegible] 藥用 [illegible] 鱗莖의 수량은 10a당 生根으로 800kg 정도이다。

〈3면으로 계속〉

淨化特輯

⊙고향을 가꿔가는 사람들 「續」

지방시대 선언 속에 사는 한 지방 문인은 『문예진흥기금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쓰여진다고 하는데 서울이 얼굴이라고해서 얼굴에 분 발라 연지만 찍으면 몸은 알몸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개탄한다。서울민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방에서 모금한 기금의 절반이상은 지방에서 써야 진흥기금의 본래의 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그는 중앙에서 조금만 균형있는 지방문화에 대한 배려를 하면 조촐한 시립극장이나 악단 하나쯤은 운영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술가의 혼으로 향토냄새 진하게 풍기며 향토의 언어로 내일을 얘기하는 지방문화의 역군들、이들이야 말로 진정 고향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향토애착 불러일으킬 구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제주출신 학생들의「제주사회연구회」라는 모임은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고향에 대한 관심으로 고향을 가꾸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여져 만들어졌다。이들은 지난84년〈제주 사회〉라는 자료집을 펴냈다。민족자원 및 자연풍광의 보고로、또는 잠시동안의 위락을 위한 휴식처로만 흔히 인식되는 제주지만 제주도라는 지역 역시 그 주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자연및 사회환경과 싸워 온 삶의 현장이다。제주에서 태어난 이들은 지난60년대 이후 일련의 개발계획에 따라 외양적으로 놀랍게 변모해 온 고향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주목하고 내일의 고향을 위해 그 문제들의 근본을 분석하는 노력을 꾸준히 펴나가고자 한다。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는 소득수준·교육수준·문화수준등 삶의 질적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그 개발과정에서 실제 제주도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 근본적 소재를 밝히고、제주도민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을 단편적으로나마 펴나가는 일 또한 필요한 과제다』

제주사회연구회가 펴낸 자료집 서문에 밝힌 바대로 이들은 제주도 개발사를 정리하고 이로 인해 빚어진 주민생활 및 산업구조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는 신문기사를 발췌、편집했다。그리고 그에 대한 도민과 여론의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자료상의 한계는 뚜렷하지만 제주도민들이 고향에 대한「무관심과 무지」에서 벗어나 향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을 불러일으킬 구실을 해 줄 것』을 회원들은 바라고 있다。

절실한 지방문화의 육성

그러나 고향을 가꾸어 나가는 구체적 작업은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관심」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자기가 뿌리내린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고향의 실체가 보잘것없으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돌아갈 곳지를 갖고 터를 잡을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쌓여 가지 않으면 향토문화는 패배주의적인 자기인식의 결과로 배타적인 문화운동만을 싹 틔울 뿐이다。『정치·경제는 물론 문화예술이 모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혜골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탄은 이제 차츰 사라져 갈 조짐이다。각 자마다、각 군마다 자기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청빈한 학자라고 해도 자료와 연구자금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듯이、고향 땅을 일구겠다는 뚝심도 농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없이는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다。앞으로 2000년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고향에 남아서도 낙오된 느낌 없이 고향을 지킬 수 있도록、또 고향을 떠나 있는 젊은이들이 긍지를 갖고 자신있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지방문화의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해 본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대로 가장 토속적인 것의 올바른 전승 발전만이 국가를 살찌우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

〈2000년 정화지에서 발췌〉